

COSMETIC REPORT

발행처 (사)대한화장품협회
발행월 2016년 2월 둘째주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907호(여의도동, 금산빌딩)
문 의 Tel : 02-785-7985
Fax : 02-782-6659
E-mail : jacklbs@kcia.or.kr



(사)대한화장품협회
Korea Cosmetic Association

CONTENTS

화장품 정보 04

'K뷰티' 열풍에 화장품 수출 고공행진
공정위, 온라인쇼핑몰 화장품 모든 제조성분 공개의무화

해외 화장품 시장 동향 08

2015년 일본 화장품 시장 주요 트렌드

법령정보 12

협회 업무추진현황 14

제67회 정기총회 개최

미래비전 선포식 개최

규제혁신 대토론회

회원사소식 23

화장품 정보

K o r e a
C o s m e t i c
A s s o c i a t i o n



국내 화장품 산업계 동향

수출 날개 단 화장품, 中 넘어 美·유럽 넘는다('16.2.11)

-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화장품 수출액은 29억2948만 달러(약 3조8405억원)임 2014년 19억1842만 달러(약 2조2001억원)보다 52.7% 증가한 수치임
- 특히 중국 수출액은 전년보다 99.2%나 증가한 11억9054만 달러였으며, 그동안 'K뷰티'를 발판으로 중국 시장을 집중 공략해온 화장품 업계가 올해는 북미와 유럽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음

- 관련링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424747&code=11151400&cp=nv>

유커, 한국선 화장품만 사는데...일본선 온천 즐기고 썸썸이도 화끈('16.2.10)

- 한국과 일본이 유커 유치에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과거 압도적으로 많은 유커를 유치했던 한국이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양국 간 중국인 관광객 수 차이는 100만명 이내(2015년 기준 한국 598만명, 일본 499만명)로 줄어 이번 춘제는 올해 전투의 승패를 가늠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전망이다
- 매일경제가 지난 9·10일 한·일 양국 현장을 취재해 본 결과 한국은 곳곳에서 유커 모시기에 적신호가 감지됐으며, '일본의 맹추격'과 '정체된 한국'으로 요약되는 이번 춘제 기간 유커 모시기 경쟁에서 질적으로는 이미 한국이 판정패를 당한 것으로 분석됨

-관련링크:

<http://news.mk.co.kr/newsRead.php?no=111942&year=2016>

'K뷰티' 열풍에 화장품 수출 고공행진('16.2.9)

- 화장품 수출이 패션·미용 분야에 불고 있는 'K-뷰티' 등 한류 영향에 힘입어 고공행진하고 있으며, 9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15년 화장품산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화장품 수출액은 1조8천959억원으로 2013년(1조4천122억원)에 비해 34.2% 증가했다고 밝혔음
- 2014년 수출 실적을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약 6천414억원(5억3천360만달러)으로 가장 많았고 홍콩(5천440억원·4억5천253만달러), 일본(2천256억원·1억8천766만달러) 순이었음

- 관련링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05/0200000000AKR20160205079100017.HTML?input=1195m>

中 농촌에도 온라인쇼핑 바람...韓, 제2 화장품 발굴해야('16.2.9)

- 중국 소비자들이 이번 춘절에 온라인소비를 활발히 한 가운데 농촌에서의 온라인쇼핑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인들이 구매를 선호하는 수입품에 한국은 주로 화장품에 국한돼 있어 다른 분야로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임
- 중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수입품은 기본적으로 각 나라의 가장 특색 있는 상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표적으로 한국의 화장품, 미국의 건강식품, 호주의 분유 등이 있음

- 관련링크: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20916014820541>

공정위, 온라인쇼핑몰 화장품 모든 제조성분 공개의무화('16.2.9)

-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쇼핑몰들이化妆품을 판매할 때 모든 제조 성분을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8일 밝혔으며, 현행법상 화장품 용기나 포장지에는 제조 성분, 유통기한, 용량, 사용 방법 등을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데도 전자상거래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맹점이 있었음
-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고시를 개정해 온라인 물들이 모든 화장품 제조 성분을 알리도록 할 예정임(단, 인체에 해가 없는 소량의 함유 성분은 표기하지 않아도 됨)

관련링크: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355301>

"유커 사로잡는다" K-뷰티 화장품 체험이벤트('16.2.6)

-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春節·음력설)를 맞아 한국을 찾은 유커(遊客·중국 관광객)가 한국 화장품의 우수성을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가 열렸음
- 한국무역협회는 5일 삼성동 코엑스몰에서 화장품 랭킹 전문 사이트 위메이크뷰티와 함께 유커와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K-뷰티랭킹쇼'를 개최했다고 밝혔으며, 사전 신청을 통해 선정된 200명은 온라인 쇼핑몰 케이몰24가 진행하는 체험 행사에 참여한 뒤 선물상자를 받았음

- 관련링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05/02000000000AKR20160205114800003.HTML?input=1195m>

'K뷰티'는 뜰까...영 BBC, 한국 화장품 열풍 분석('16.2.11)

- 화장품 한류인 'K뷰티(K-Beauty)'가 젊은 여성들이 운영하는 소규모 스타트업 판매상을 중심으로 미국 등 해외에 퍼지고 있다고 영국 공영방송 BBC가 전했다
- BBC는 "한국 여성은 미국 여성보다 화장품에 두 배 이상 돈을 쓰고, 한국 남성은 다른 어느 나라 남성보다 화장품을 많이 구매한다"며 "이러한 내수 시장이 한국을 '화장품 선도 국가'로 올려서게 했다"고 분석했음

- 관련링크:

http://sports.khan.co.kr/news/sk_index.html?cat=view&art_id=201602112149523&sec_id=560101&pt=nv

대한미용사회, 규제 프리존 법인미용실 허용 결사 반대 표명('16.2.4)

-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화장품산업 규제 프리존(규제자유지역)'으로 국내 뷰티업계가 들쭉이고 있는 가운데, 대한미용사회중앙회(회장 최영희)가 지난 1월 2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미용업 법인 진출 방안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음
- 대한미용사회중앙회의 이런 반응과 관련해 1월 27일 식약처는 "규제 프리존의 물리적인 범위, 지정 절차, 이·미용업 진출 법인의 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향후 지역사회 및 이해관계자 등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자체장이 결정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관련링크:

<http://www.beautynury.com/news/view/70792/cat/10>

제약업계, 기능성 화장품으로 면세점 입점 타진 중('16.2.11)

- 국내 제약업계의 '캐시카우(Cash Cow, 수익창출원)'로 떠오른 '코스메슈티컬' 브랜드가 면세점 입점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국내는 물론 중국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브랜드 홍보가 필요한데 면세점을 최적의 채널로 보고 있는 것임
- 11일 업계에 따르면 다수의 제약사들이 이러한 코스메슈티컬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론칭하면서 중국 시장 등으로의 진출을 위한 발판으로 면세점을 선택하고 있는 모양새임

- 관련링크:

<http://www.newspim.com/news/view/20160211000193>

한류 바람, 이제 화장품에서 치약 등 생활용품까지 확대('16.2.15)

- 중국의 한류가 이제 화장품을 넘어 샴푸, 치약 등의 생활뷰티 제품군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중국의 소비수준이 높아지고 한국을 여행한 사람이 늘면서 프리미엄급으로 통하는 한국제품에 대한 수요 또한 상승세에 접어든 것으로 풀이됨
- 실제로 중국 1위의 유통 및 종합 중대형마트 운영사인 항저우 렌화마트에서 수입하는 외국제품 중 10%는 한국제품이며, 그 중 2014년 가장 많이 판매된 제품은 애경 2080치약이었음

- 관련링크:

<http://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1602150100110540007219&servicedate=20160215>

'홈쇼핑 화장품 대박' 한국콜마, 연매출 1조 돌파('16.2.15)

- 국내 1위 화장품 제조업자개발생산(ODM) 업체인 한국콜마가 창업 26년 만에 연간 매출액 1조 원을 넘어섰으며, 한국콜마와 한국콜마BNH 등 계열사 10개의 지난해 합산 매출액이 2014년의 8260억 원보다 20.4%가 늘어난 1조72억 원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음
- 한국콜마가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건 AHC아이크림, 퍼펙트스킨 등 직접 만든 제품이 홈쇼핑에서 히트상품으로 자리를 잡은 덕분이며, 손발톱 무좀치료제인 풀케어의 제네릭(복제약)을 개발 생산한 것도 지난해 매출 신장에 큰 역할을 했음

- 관련링크:

<http://news.donga.com/3/all/20160214/76441769/1>

○ 국내외 정보

□ 독일, 화장품에 포름알데히드 금지 - 위험물질로 분류('16.1.16)

- 2016년부터 화장품에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사용이 금지됨. 2016년 1월 1일부터 포름알데히드의 '위험물질로의 분류'가 적용됨 이로써 이제 포름알데히드가 공식적으로 '인간에게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물질'로 분류됨
- 화장품 규정에 따르면 그러한 위험물질은 유럽집행위원회가 명시적으로 15개월 내에 예외를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장품에서 허용되지 않음
유럽집행위원회는 9월 말까지 예외를 승인해야 했으나 예외를 두지 않았고, 외코테스트는 이제 모든 화장품에 포름알데히드가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환영하는 바임
하지만 규정의 시행일이 2015년 9월 말에서 올 초로 연기되었음
- 외코테스트는 포름알데히드 금지가 유감스럽게도 포름알데히드를 서서히 방출할 수 있는 포름알데히드 방출제에도 자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역시 비판적으로 보고 있음
외코테스트는 그러한 물질들을 여러 화장품에서 거둬 발견하고 평가시 4단계를 감점하고 있음
- (기업체 참고사항) 우리나라에서는 포름알데히드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음

※ 상기내용은 온라인정보에 근거하여 위해정보과에서 1차 분석한 내용으로 귀사에서 정보내용을 활용시 정확한 사실여부를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정보의 활용 사례가 있거나 정보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우리 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닌 단순 참고자료이므로 각종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효력이 없습니다.

- 관련링크:

<http://www.oekotest.de/cgi/index.cgi?artnr=12779&gartnr=90&bernr=10>

- 관련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정보과 기업체 활용정보(Tel: 043-719-1759,
Fax: 043-719-1750, E-mail: hyeonaki@korea.kr)

○ 해외 화장품 시장 동향

세계시장동향

2015년 일본 화장품 시장 주요 트렌드

- 남성용 및 실버세대용에서 활로 모색 중 -
- 외국인 관광객 소비 증가, 유통기업 한정제품 잇따른 출시도 화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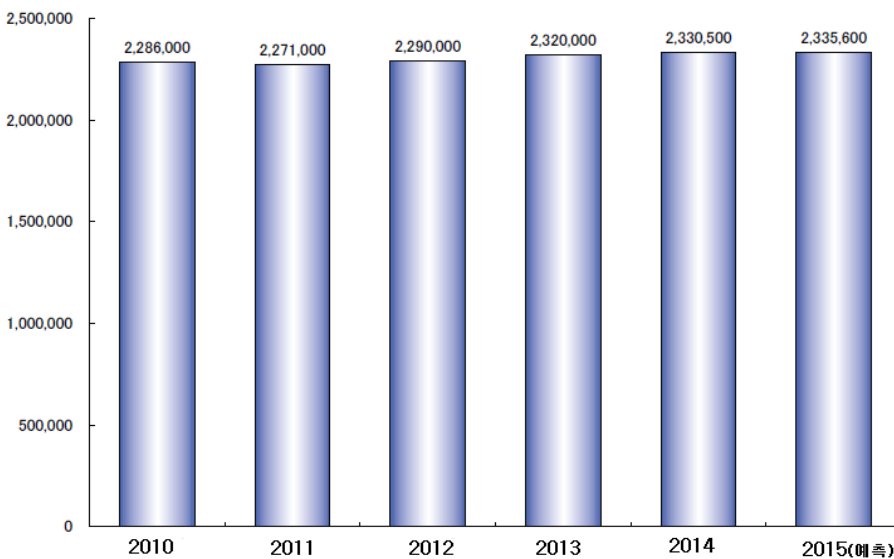
□ 일본 화장품 시장 규모

○ 야노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14년 일본 화장품 시장은 전년대비 0.5% 확대된 2조3305억 엔을 기록했으며, 2015년에는 2014년 대비 0.2% 증가한 2조3356억 엔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2014년 상반기에는 소비세 증세에 따른 소비심리 하락으로 시장이 침체를 겪었지만, 하반기 이후 소비 마인드 회복

- 또한 10월 이후 시행된 외국인 관광객 면세제도 개정으로 관광객의 소비가 급성장

○ 제품별 시장규모는 스킨케어(46.2%), 메이크업(21.9%), 헤어케어(18.2%), 남성용 화장품(5.0%) 순



자료원: 야노 경제연구소

□ 2015년 일본 화장품 시장 주요 트렌드

○ 외국인 관광객 소비 증가

- 시장조사 기관인 (주)종합기획센터 오사카에 따르면, 2015년 외국인 관광객의 화장품 및 세면용품 구매액은 전년대비 약 70% 증가한 950억 엔에 달할 전망
- 전체 화장품 시장에서 외국인 관광객 구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2.4%에서 4%로 증가 전망
- 이에 따라 가오, 가네보 등 주요 화장품 업체는 중국 관광객에게 인기가 높은 상품을 중국어로 알리는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를 늘리기 위해 노력 중

○ 실버세대용 화장품 시장 경쟁 격화

- 화장품 전문 주간지 「주간 화장」에 따르면 2020년에는 일본 전체 여성인구에서 5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설 전망
- 또한 50대 이상의 화장품 구매 금액은 전체 시장의 약 절반인 1조5000억 엔에 달하고 있음
- 화장품 제조기업의 시니어 시프트 경향은 2007년 이후 시작됐지만 그간 스킨케어 제품에 한정됐음. 그러나 올해 봄에 시세이도와 가네보에서 50대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한 메이크업 제품을 잇따라 출시하면서 새로운 단계로 진입

최근 출시된 실버세대용 화장품

시세이도의 고풍층 여성용 종합 브랜드

PRIOR(2015년 1월 출시)



카네보의 50대 이상 여성용 브랜드

'COFFRET D'OR GRAN'(2014년 출시)



자료원: 각 사 홈페이지

○ 유통기업 한정상품 확대 및 PB 제품 시장에 대기업 잇따른 진입

- 세븐 & 아이 홀딩스는 2015년 봄에 카오, 라이온, 시세이도와 공동 개발한 신상품을 잇달아 출시해 화제가 됨. 화제가 된 이유는 그간 대기업 제조업체는 소매기업 PB 상품 및 한정상품 개발에 소극적이었기 때문
- 최근에는 고정고객 확보 및 재구매율 상승을 위해 종합슈퍼뿐 아니라, 드러그스토어, 편의점 등에서도 PB 상품 출시를 확대함으로써 다른 유통점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음
- 드러그스토어인 마츠모토 키요시도 고세(인스트림), 폴라(메라노 사이언스) 등 제조기업과 공동개발한 제품 판매 중

확대 중인 유통기업 한정상품



자료원: 각 사 홈페이지

○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남성 화장품 시장

- 2014년 남성용 화장품 시장은 전년대비 1.7% 확대된 1160억 엔 기록
- '냄새로 인한 폭력'이라는 말이 널리 쓰이면서, 30~40대 남성 특유의 땀 냄새 케어 시장이 성장
- 바디 클렌저 및 샴푸 등도 냄새 케어 기능을 집중 홍보하면서, 전통적인 가족 공동 바디클렌저·샴푸에서 남성 개인용 바디 클렌저·샴푸 사용경향이 나타남

□ 시사점

- 고도의 성숙시장이나 지속 성장 중인 일본 화장품 시장
 - 일본 화장품 시장은 저출산 고령화로 성숙한 시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시니어 층과 남성용 화장품 개발, PB 브랜드 진출 확대를 통해 활로를 모색하고 있음
 - 또한 최근에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구원투수로 작용하기도 함
- 일본 화장품 시장 진출을 시도하는 우리 기업도 수요가 확대되는 PB 제품 시장, 실버 세대용 화장품, 남성용 냄새 케어제품 등 동향에 주의를 기울이고 공략해볼 만함

자료원: 야노 경제연구소, 주간 화장 및 KOTRA 오사카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KOTRA & globalwindow.org, 2015. 12. 24 오사카무역관〉

법령정보

K o r e a
C o s m e t i c
A s s o c i a t i o n

○ 국내 법령 정보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안내(법률 제14027호, 2016.02.03., 시행 2017.02.04.)

- 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 제조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제3조, 시행 2016.02.03.)
- 제조판매업 등록 결격사유에서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 중독자 제외(제3조, 시행 2016.02.03.)
- 제조판매관리자 정기교육 의무화(제5조)
- 소용량 화장품 사용기한 및 제조번호 기재·표시 의무 추가(제10조)
- 화장품 제조에 원칙적 동물실험 금지(제15조의2)

※ 상기 법률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음

협회 업무추진현황

K o r e a
C o s m e t i c
A s s o c i a t i o n

○ 성분명표준화위원회

우리 협회 '성분명표준화위원회'에서는 2016년 3차회의에서 아래와 같이 13개의 화장품 성분명을 표준화하였다.

연번	성분명	영문명
1	락토바실러스/현미발효물	
2	베르가못잎오일	Citrus Aurantium Bergamia (Bergamot) Leaf Oil
3	복사나무싹추출물 * 이명추가 : 복숭아나무싹추출물	Prunus Persica (Peach) Bud Extract
4	비쭈기나무줄기추출물	
5	비타민나무캘러스배양추출물	Hippophae Rhamnoides Callus Culture Extract
6	빅트리싹추출물	Sequoiadendron Giganteum Bud Extract
7	빌베리싹추출물	Vaccinium Myrtillus Bud Extract
8	엘더꽃	Sambucus Nigra Flower
9	오렌지꽃	Citrus Aurantium Dulcis (Orange) Flower
10	좁은잎천선과잎/가지추출물	
11	탄제린수	Citrus Tangerina (Tangerine) Fruit Water
12	포타슘하이드롤라이즈드폴리감마-글루타메이트	Potassium Hydrolyzed Polygamma-Glutamate
13	하이드로제네이티드소이글리세라이즈	Hydrogenated Soy Glycerides

○ 화장품 제도위원회 개최

우리협회에서는 2016.02.04.(목)에 화장품 제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20개사에서 참석한 가운데 주요 논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현행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와 관련하여 확대 등에 대하여 논의함
-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중 우선순위에 대하여 논의함

○ 제67회 정기총회 개최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는 2월 16일(화) 소공동 롯데호텔 사파이어 볼룸에서 회원사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7회 정기총회를 열고 2015년도 사업실적보고 및 결산승인, 2016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심의, 정관개정 등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또한 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임원개선이 있었으며, 회장으로는 서경배 현 회장이 제43대 회장으로 연임되었다.

서경배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2016년에는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사랑 받는 화장품 산업을 만드는데 역점을 기울일 것이며, 이를 위해 화장품 제도의 합리적 개선,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 소비자 안전 확보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으며,

취임 소감으로 “화장품산업이 내수 산업에서 수출 산업으로 전환되는 시점으로 과거 어느 때 보다도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며, 소비자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화장품산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회원사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날 총회에서 협회는 화장품 제도를 연구하여 세계 수출 6위 국가에 걸맞은 화장품법 개정을 건의하고, 화장품의 안전, 제도 이슈 등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제도 민첩 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과학기술위원회를 운영하여 화장품 안전이슈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설명 자료를 DB화하고 보다 더 객관적이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화장품 산업 및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서는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화장품 제도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국의 위생 허가교육 및 관련 지원을 확대하며, 특허청에 지원을 받아 상표권 등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등의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 협회 임원 명단

구분	회사명		성명	비고
회장	(주)아모레퍼시픽	대표이사	서경배	
부회장	(주)엘지생활건강	대표이사	차석용	
부회장	(주)코리아나화장품	대표이사	유학수	
부회장	한국화장품(주)	대표이사	임충헌	
부회장	(주)마임화장품	대표이사	홍혜실	
부회장	소망화장품(주)	대표이사	최백규	
부회장	한국콜마(주)	대표이사	윤동한	
부회장	(주)코스맥스	대표이사	이경수	
이사	애경산업(주)	대표이사	고광현	
이사	(주)참존	대표이사	김광석	
이사	(주)한국존슨앤드존슨	대표이사	김광호	
이사	이엘씨에이(유)	대표이사	크리스토퍼킨더슬리우드	
이사	엘오케이(유)	대표이사	얀브노와르부르동	
이사	(주)일진코스메틱	대표이사	유승우	
이사	(주)에이블씨엔씨	대표이사	서영필	
이사	(주)토니모리	대표이사	배해동	
이사	한국P&G(유)	대표이사	김주연	
감사	대봉엘에스(주)	대표이사	박진오	
감사	엔프라니(주)	대표이사	김태훈	
전무이사	대한화장품협회	전무이사	이명규	

○ 미래비전 선포식 개최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가 주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가 후원하는 화장품산업의 미래비전 선포식이 2월 16일(화) 소공동 롯데호텔 사파이어 볼룸에서 개최되었다.

정부, 업계, 언론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미래비전 선포식에서는 개회선언, 기념사, 축사, 시상식, 화장품 산업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비전선포 순으로 진행되었다.

시상식에서는 화장품 업계의 경쟁력 향상과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큰 (주)LG생활건강 김재천 팀장, (주)한국화장품제조 강희덕 과장, 유씨엘(주) 임정제 팀장, 씨엔에프화장품 추예원 실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을 수상하였다.

또한 화장품 산업 발전에 기여한 보건복지부 조성원 사무관, 식품의약품안전처 남경우 주무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김도정 주무관과 최용규 주무관이 협회장 감사패를 받았으며, 뷰티누리 안용찬 부국장에게는 협회장 표창 수여가 있었다.

협회에서는 화장품산업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로 한걸음 더 도약하기 위해서 ‘K-뷰티,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라는 슬로건 하에 ‘수출 100억불 달성’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였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①관광과 쇼핑을 결합한 복합 상품의 개발을 통한 ‘문화 및 관광산업 육성’ ② 원료산업·패키지 산업 육성, 혁신적인 기술·소재 개발, 국내 로컬 브랜드의 글로벌화, 화장품 글로벌 트렌드 선도 등을 통한 ‘화장품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③ ‘합리적 제도를 통한 업계의 자율 강화’ ④ 화장품과 미용서비스, 미용기기, IT, 디자인, 바이오 등 ‘주변 산업과의 융합’을 제시하였다.



○ 수상자 명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4명)

회사명	성명	직위	비고
(주)LG생활건강	김재천	팀장	
(주)한국화장품제조	강희덕	과장	
유씨엘(주)	임정제	팀장	
씨엔에프화장품	추예원	실장	

□ (사)대한화장품협회장 감사패(4명)

기관명	성명/직위	소속
보건복지부	조성원 사무관	보건산업진흥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남경우 주무관	화장품정책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김도정 주무관	화장품심사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최용규 주무관	화장품연구팀

□ (사)대한화장품협회장 표창(1명)

기관명	성명/직위	소속
뷰티누리	안용찬 부국장	편집국

○ 규제혁신 대토론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최로 「화장품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혁신 대토론회」(2월 16일, 롯데호텔서울)가 개최되었다. 금번 토론회에는 화장품 업계 CEO, 학계, 의료계, 소비자 단체 등 화장품분야 전문가가 참여하여 기능성 화장품 범위 확대, 화장품 표시·광고 등 화장품 분야 규제현안에 대해 논의되었다.

▲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확대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으며, 관련 산업과 대기업, 중소기업, 수입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그 우선순위를 정하여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였다.

▲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해서도 전세계의 규제현황을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의약품 오인”은 표시·광고에서 금지하고 있으나, 기본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국가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금년에 화장품업계, 소비자 단체 등과 논의를 통하여 용어 제한 문제 등 표시·광고 개선에 대해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였다.

▲ 자외선A차단 등급 표시 확대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일시 염모제 색소 범위 확대에 대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 용역 완료시 확대에 대해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며, 색소로 사용되는 TiO_2 의 사용제한에 대해서도 제품 현황을 파악하여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 해외 규제 동향 공유를 통한 수출 측면 지원 등 화장품 분야 규제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수출주력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화장품산업에 대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마련을 위해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였다.



※2016년 전시회 일정

행사명	일시	장소	비고
in-cosmetics Europe 2016	2016.04.12~04.14	프랑스(파리)	모집중
2016코스모뷰티베트남전시회	2016.04.21~04.23	베트남(호치민)	모집완료
중국상해화장품전시회	2016.05.18~05.20	중국(상해)	모집완료
2016중국광주화장품미용박람회(추계)	2016.09.04~09.06	중국(광주)	
2016홍콩화장품미용박람회	2016.11.09~11.11	홍콩	

회원사 뉴스

K o r e a
C o s m e t i c
A s s o c i a t i o n

귀 회원사의 창립기념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라젬헬스앤뷰티 창립 6 주년(2010. 2. 9)

한불화장품 창립 27 주년(1989. 2.18)

